충북 보은 법주사

충남 공주 마곡사

전남 해남 대흥사

경북 영주 부석사

경북 안동 봉정사

경남 양산 통도사

전남 순천 선암사

한국의 산사 7곳, 세계 유네스코 반열에

한국 불교의 지속성·역사성 탁월
문화·의례 등 무형적 요소 다분
우리나라 세계유산 총 13건 보유

통도사 등 7곳 산사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24일부터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30일 오후(현지시각)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우리나라의 13번째 세계유산이 된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통도사(경남 양산)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법주사(충북 보은) ▲마곡사(충남 공주) ▲선암사(전남 순천) ▲대흥사(전남 해남) 등 총 7곳 사찰로 구성돼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들 사찰이 '7~9세기 창건 이후 현재까지의 지속성,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성'이 세계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기준(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등재된 전통산사들은 1500여년의 불교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날까지도 선·교 융합의 사상과 기능, 의식, 승려, 생활, 문화 등이 유지되고 계승되는 지속성과 생명력을 지닌 유산이다. 더불어 신앙적 기능, 수행자의 삶과 문화를 포함한 의례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무형적 요소도 다분하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7개 산사 모두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기쁘다. 처음 일부 산사가 역사성과 규모면에서 권고대상에서 빠져있었지만, 문화재청에서 역사적 자료를 보완하고 유네스코한국대표부와 외교부와 협력해 진정성있게 설명한것이 인정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등재에 힘써준 종교계,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에 등재된 산사와 이미 등재된 12개의 세계유산을 잘 보존하고 각유산이 지니는 가치와 유용성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동안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를 받았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지난 5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7개 산사 중 연속유산으로서의 선정 논리 부족 등을 이유로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4개 산사만을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문화재청과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외교부로 이루어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 대표단은 위원회에서 7개 산사 모두가 같이 등재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지교섭을 해왔다. 그 결과, 이날 등재 결정 논의 과정에서 위원국인 중국이 7개 산사 모두를 등재할 것을 제안하면서 21개 위원국 중 17개국이 공동 서명했고, 20개 위원국이 지지발언을 하면서 등재가 이뤄졌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사 등재결정과 함께 추가로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산사 내 건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산사의 종합정비계획 마련 ▲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산사 내 건물 신축 시 세계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는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해 산사 내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존과 보호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수행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잘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세계유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특히,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규정하는 '세계유산법' 제정과 세계유산관련 국제기구(카테고리2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등재된 세계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관계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 산사의 등재로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해 세계유산 총 13건을 보유하게 됐다.

/오진희기자 valere@metroseoul.co.kr

유소연, 메이저 대회 세번째 우승 한걸음 '더'

우승하고 쭈타누깐이 3위 내에 들지 못하면 세계 1위도 탈환

유소연(28)이 메이저 대회 세 번째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난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킬디어의 켐퍼 레이크스 골프클럽(파72·6천741야드)에서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365만 달러)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유소연은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사흘 합계 11언더파 205타의 성적을 낸 유소연은 2위 브룩 헨더슨(캐나다)을 3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나섰다. 2라운드에서 공동 선두가 된 이소연은 이날은 단독 1위까지 치고 나갔다.

현재 1위 박인비(30)가 이번 대회에서 컷 탈락한 가운데 유소연이 우승하고, 세계랭킹 2위 에리야 쭈타누깐(태국)이 3위 이하의 성적을 내면 유소연이 세계 1위가 된다. 현재 세계랭킹 5위 유소연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9주간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한 바 있다.

유소연 선수. /연합뉴스

한국의 독일 격파, '러 월드컵' 亞 최대 수확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평가
오늘 일본-벨기에 16강전 등이 변수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거둔 최대의 수확은 한국의 독일 격파라는 평가가 나왔다.

홍콩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일 이번 대회 아시아 국가들의 조별리그 결과를 결산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돋보이는 결과는 한국이 독일을 2-0으로 완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매체는 "일본이 2일 열리는 벨기에와 16강전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 어디까지 진출하느냐가 변수"라고 지적했다.

즉 일본이 벨기에를 꺾고 8강 이상의 성적을 올린다면 이번 대회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결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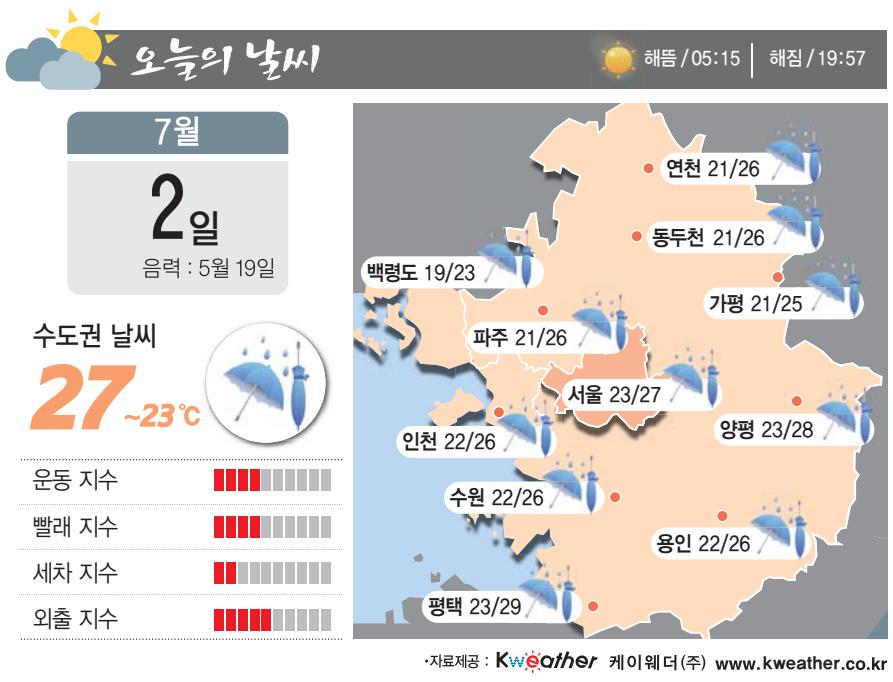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은 비록 16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고개를 당당히 들고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서 김영권의 골이 VAR 판독결과 골로 인정되자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한국의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북한의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8강 등의 예를 들며 "아시아 국가들도 세계적인 팀들과 대등하게 맞서거나 심지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팀워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3억 명이 넘는 인구의 중국이 축구에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기장 시설 부족, 외국 선수들에 비해 체격적인 열세, 기술과 경기 이해력 부족 등의 이유가 거론된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건 30년 내 월드컵 본선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의 목표를 이루려면 이번 대회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력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그림책작가 허정윤의 '코딱지 코지' 展 열려

그림책 작가 허정윤의 전시가 고양시 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인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작가의 방' 전시로 '코딱지 코지'의 허정윤 작가의 전시를 마련했다. 그림책을 통해 재미와 웃음을 한껏 주고 싶다는 작가의 원화와 아기자기한 클레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첫날에는 작가의 방 도슨트 프로그램이 꾸려져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21일과 8월 4일에는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된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엽어린이도서관 1.5층 꼼지락꼼지락그림책갤러리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 또는 주엽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시는 다음달 4일까지.

/오진희 기자